

보도시점 : 2026. 9. 10.(목) 11:00 이후(9. 11.(금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10.(목)

'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

【관련 국정과제】 49.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

- '27년 신규사업...주민의견 반영한 충실한 사업계획으로 효과 극대화
- 자생조직 육성,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원 재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,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'27년 신규사업 선정절차를 9월 11일부터 착수한다.
 - '27년부터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·상인 등 사업주체의 역량제고,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공모 선정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'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접수토록 하고, '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.
 - 특히, 이번 공모에서는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고부터 접수까지 약 3개월 이상의 기간(기존 약 1개월)을 충분히 확보하고, 최소 2회 이상(기존 1회)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.
 - 또한, 지역 내 SOC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유사시설 중복을 방지하고, 주민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한다.
- '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①지역특화재생사업, ②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, ③인정사업으로 구분되며,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하여 선정한다.

- (지역특화재생) 역사·문화·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화, 상권활성화,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.
- (노후주거지정비 지원)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·편의시설을 공급하고,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(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)을 지원한다.
- (인정사업)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·정비,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.

□ '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9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*에 공고한다. 9월 17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**도 개최할 예정이다.

*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(<https://www.city.go.kr> / 접수·평가)에서 확인 가능

** (일시/장소) 2026년 9월 17일(목) 15:00 /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(대전)

□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“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,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”임을 강조하며,

- “지방정부·지원센터·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	책임자	과 장	박희민 (044-201-4901)
		담당자 <지역특화>	사무관	신한나 (044-201-4905)
		담당자 <노후주거지정비>	사무관	최무영 (044-201-4934)
		담당자 <인정사업>	사무관	최아진 (044-201-4902)